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지성 복귀” 올드트래퍼드 달군다

8개월만인 23일 에버턴전 출전 축구팬 흥분
퍼거슨 “테스트 없이 출장 시간 늘리며 조절”
동국·영포·기현도 리그 경기 맹활약 기대

축구팬의 시선이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로 향하고 있다. 부상으로부터 8개월 만에 그리폰을 떠나 있던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부활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맨유는 23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에

버턴을 상대로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아스널에 승점 1이 뒤져 2위를 달리고 있는 맨유로서는 선두 탈환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판이다. 무엇보다 더 큰 관심은 박지성의 복귀에 모아지고 있다.

박지성은 지난 3월31일 블랙번 로버스와 정규리그에서 불의의 무릎 부상으로 8개월이 넘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내년 1월이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 지금은 출전에 문제가 없을 만큼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 에버턴전을 복귀 무대로 삼았다. 다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테스트 없이 박지성을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체 투입이라도 일단 실전에 넣어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박지성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 이천수(26·페예노르트)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네이메켄과 정규리그 원정

경기를 준비 중이다. 리그 적응 과정에서 뜻밖의 시즌 중 귀국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천수로서는 하루 빨리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 보여 구단의 배려에 보답해야 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스몰여덟 동갑내기 이동국(미들즈브러)과 설기현(풀럼)은 22일 자정 각각 웨스트햄, 위건과 홈 경기를 치른다. 경쟁자들의 줄부상 속에 최근 불박이 왼쪽 골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표(30·토트넘)는 이날 리그 선두 아스널과 원정경기에서 출전해 상대의 막강 화력을 막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림픽축구 대표팀 스페인 전훈 25명 발표

사상 첫 올림픽 메달 꿈을 키우며 새해 새 함께 출발할 올림픽축구대표팀 전지훈련 참가 선수가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제출한 스페인 전지훈련(내년 1월8일~27일) 명단 25명을 발표했다. 이번 팀에는 수비수 윤원일(제주), 공격수 조영철(요코하마FC), 조동건(성남) 등 세 명이 새내기로서 이름을 올렸다. 윤원일은 지난달 15일 프로축구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은 중앙수비수. 청소년대표 경력이 없지만 '휴속의 진주'로 발돋움했고 올림픽호 승선 기회까지 잡았다. 조영철은 지난달 6일 광에서 열린 19세이하(U-19) 아시아선수권대회 예선 경기에서 10골을 터뜨려 역대 대표팀 한 경기 개인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주영(FC서울), 이근호(대구), 기성용

(FC서울), 백지훈(수원), 이상호(울산), 강민수(전북), 김진규(FC서울) 등 기존 주전들은 대부분 훈련 명단에 포함됐다. 올림픽대표팀은 내년 1월6일 오후 9시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소집해 7일 오후 스페인 현지로 떠난다. 다음은 올림픽대표팀 전지훈련 참가 명단(25명). △GK=정성룡(포항) 송유결(인천) 양동원(대전) △DF=강민수(전북) 김창수(부산) 김진규(서울) 김근환(경희대) 이요한(제주) 신광훈(포항) 최철순(전북) 박주호(승실대) 윤원일(제주) △MF=백지훈(수원) 이상호(울산) 기성용(서울) 이청용(서울) 이근호(대구) 이승현(부산) 백승민(전남) 김승용(광주) △FW=박주영(서울) 서동현(수원) 한동원(성남)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올해 가장 아쉬운 일

“마스터스·US오픈 놓쳐 후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마스터스와 US오픈 우승을 놓친 것이 2007년에 가장 아쉬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우즈는 21일(한국시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7년을 결산하는 글을 직접 올렸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마스터스와 US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이다. 나는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를 좀 더 고민해보고 2008년에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2007년에 가장 좋았던 리스트를 꼽자면 단연 톱은 아내와 딸”이라고 가정적인 면모를 과시한 우즈는 “예전부터 ‘아빠가 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을 슬하에 들었지만 진짜 아빠가 되기 전

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빠가 된 즐거움을 숨기지 않았다. 골프에 대해서는 “항상 말하지만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다면 그 시즌은 훌륭하게 해낸 것이다. 따라서 PGA 챔피언십을 우승한 것이 하이라이트지만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내 내용에도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스윙 코치인 헨크 헤이니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다. “가족 문제로 예전처럼 많은 대회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있어줬다”면서 “내 스윙을 스스로 더 이해하게 됐고 문제가 생기면 그가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는 “2008 시즌은 1월 말 뉴욕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방어로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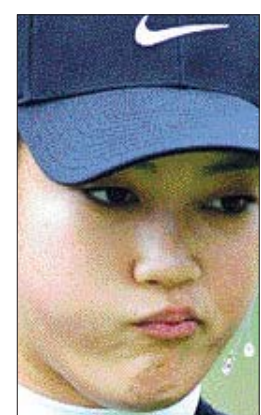


타이거 우즈가 지난 17일 끝난 티킵챌린지골프대회 우승 후 가족들과 앉아 있다. 왼쪽부터 우즈, 딸 샘, 어머니 콜디다. 부인 엘린. /로이터=연합뉴스

위성미, 성대결은 이제 그만

LPGA 투어 전념 밝혀

성(性)대결로 헛심을 찢던 위성미(18·미국이름 미셀 위)가 2008년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전념한다. CBSsports.com은 위성미의 코치 데이비드 레드베터의 말을 인용, 매년 1월에 열리는 남자대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으로 시즌을 시작했던 위성미가 올해는 남자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LPGA 투어에서 허물어졌던 자신의 명성을 다시 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21일 전했다. ‘천만달러의 소녀’, ‘현재골프소녀’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위성미는 지난해에도 남자대회에 출전했지만 형편없는 성적과 함께 손목까지 다쳐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레드베터는 “끔찍한 한 해를 보낸 미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윙 폼과 자신감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드베터와 함께 몸을 만들고 있는 위성미는 남자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대신 내년 2월 고향인 하와이에서 열리는 2개 대회 중 1개 대회에 출전할 전망이다.



앗! 얼굴 막아야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에서 삼성에스원 김보혜(오른쪽)가 돌리고등학교 오세연을 상대로 얼굴 공격을 하고 있다.

리오스, 日 야쿠르트와 ‘1+1년’ 계약 추진

1년 4억엔 후 재계약 조건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다니엘 리오스(35·전 두산)를 영입하면서 팀이 재계약 권리를 갖는 ‘1+1년’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가 21일 보도했다. 총액을 예상보다 많은 4억엔으로 늘려 제시하는 대신 1년 후 재계약 여부를 구단이

결정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는 설명이다. 야쿠르트는 내년엔 리오스를 마운드에 올린 뒤 마음에 들면 1년 더 붙잡을 수도 있지만 짧으면 1년 만에 내칠 수도 있다. 구단 관계자는 “서류 절차상 문제만 남았다”며 “빠르면 이달 중 영입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오스는 등번호 34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조 골리앗’ 김영현 연말 K-1 대회 출전

민속씨름 천하장사 출신 ‘원조 골리앗’ 김영현(31·217cm)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종합격투기 K-1 대회에 출전한다. K-1 주최사 FEG 관계자는 21일 “김영현이 31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K-1 프리미어 2007 다이너마이트’ 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현은 이로써 지난 9월 K-1 데뷔전에서 ‘배태랑 파이터’ 야나기사와 류우시(35·일본)를 맞아 심판 전원일치(3-0)로 관중승을 거둔 지 3개월 만에 링 위에 다시 오르게 됐다. 대전 상대로는 일본 또는 유럽 출신의 파이터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최종 대진은 다음 주 일본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된다. K-1 두 번째 경기에서 KO승을 목표로 발차기 기술과 체력 강화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김영현은 26일 전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 22일(토)
- ▲07/08 NBA<시카고 : 보스턴>(09 : 00·MBC ESPN)
 - ▲07/08 프로농구<KT&G : 삼성>(14 : 50·SBS스포츠)<전자랜드 : LG>(14 : 50·XSPORTS)
 - ▲07/08 V리그 남자부<삼성화재 : 한국전력>(15 : 00·KBS N SPORTS)여자부<현대건설 : KT&G>(17 : 00·KBS N SPORTS)
 - ▲07/08 여자프로농구<금호생명 : KB국민은행>(16 : 50·SBS스포츠)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아스날 : 토트넘>(21 : 30·MBC ESPN)

- 23일(일)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풀럼 : 위건>(00 : 00·MBC ESPN)<미들즈브러 : 웨스트햄>(04 : 00·MBC ESPN)
 - ▲07/08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축구<04 : 00·KBS N SPORTS>
 - ▲07/08 NBA<휴스턴 : 시카고>(10 : 30·SBS스포츠)
 - ▲2007 실업볼링대회(13 : 00·MBC ESPN)
 - ▲07/08 V리그 남자부<LG : 상무>(14 :

- 00·KBS N SPORTS)여자부<흥국생명 : GS칼텍스>(16 : 00·KBS N SPORTS)
- ▲07/08 프로농구<KT&G : KTF>(14 : 50·SBS스포츠)<동부 : 모비스>(16 : 50·SBS스포츠)<LG : SK>(14 : 50·XSPORTS)<KCC : 오리온스>(17 : 00·XSPORTS)
- ▲남녀복싱대결&IFBA세계페더급 타이틀 매치(15 : 00·MBC ESPN)
- ▲07/08 네덜란드리그<N.E.C. : 페예노르트>(20 : 10·SBS스포츠)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 : 에버턴>(21 : 00·MBC ESPN)
- ▲07/08 세리에A<인터밀란 : AC밀란>(23 : 00·MBC ESPN·KBS N SPORTS)

- 24일(월)
-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블랙번 : 첼시>(01 : 00·MBC ESPN)

골프·윈도 회원권기대 전문가인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사용권	골프장 사용권
광주 3,400	부산 1,800
남양주 4,200	주부 2,400
합계 7,600	도포양 3,000

상담문의 (062)351-0095